

## 남쪽의 자연

임 경 빈



몇해전 영암의 월출산(月出山) 바위능선을 타고 난 뒤 그동안 남쪽의 자연은 나에게 뜸했었는데 이번에 승주(昇州)의 조계산(曹溪山)을 넘게 된다는 것은 가슴을 설레이게 하는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추석 다음날이라 서울을 빠져 나가는데 큰 불편이 없었다는 것도 고마웠다.

선암사(仙岩寺) 입구에는 우선 오래된 굴참나무와 흰속소리나무가 위엄있는 모습으로 버티고 있어서 이곳이 어떠한 곳인가를 말 없이 알려 주고있다.

굴참나무와 갈참나무사이의 튀기로 생겨났을지도 모르는 흰속소리나무는 전라 남도에 난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보게된 것은 기쁘다.

백년이사 월선 님은 전나무끝에 달린 달의 윤곽이 지나칠 정도로 뚜렷한데 길바닥의 돌맹이의 그림자도 뚜렷해 촛불이 없어도 된다(明月不烟燭)는 글귀의 하나가 생각난다. 투명하고 깨끗하다 못해서 없어져버린 공기 속에서 나는 선암사 절간방에서 잠을 이루기 거북했다. 오염에 질여버린 나의 습성때문인가.

노령의 사승(師僧) 한 분이 화선지에 일필해 주시고 주석을 하신다. 사자새끼는 토끼가 뛰어노는 길목에 서지 않는다(獅兒不遊於兔逕) 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자연에 꼭 파묻혀서 먼지를 모르는 이분의 말뜻이 알지는 않을 것이다. 너와 나는 다르지만 서로 함께 지내고 있다든가 또는 가치관의 단절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도 서 있는 자리는 멀지않다는 자연생태계의 원칙을 설명하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이래서 자연은 배울것이 많다.

굵은 고로쇠단풍나무와 굴참나무가 많았고 나무들의 키가 높다는 것이 이곳 자연의 자랑이었다. 높은 나무가 있다는 것은 조계산의 잠재력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송광사로 내려가는 길에서 두무릎이 시궁거리기 시작한다. 물안개 뿌러지는 바위에 앉아 심호흡을 하면서 자라나는 때죽나무의 열매를 바라본다. 넘치는 생리를 감당하지 못해서인가 영글지 못한 속소리열매가 기다리지 못하고 떨어지고 있다.

인간을 외면한체로 조계산은 실사이 없이 조용히 숨쉬고 있었다. 그것은 또 하나의 위대한 남쪽의 자연이었다.

(본협회 부회장)